



## 낙태의 후유증과 여성의 자살... 그리고

2010년 7월 통계청은 2009년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고하였다. 주목할 사실은 여성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지난해 5위에서 3위로 꺾여 뛰어났다는 것이다. 왜 여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예가 더 많아진 것일까? 자살자의 경제적, 심리적 상황을 판단하기 조심스러우나 그 보도를 접하면서 낙태를 떠올리게 되었다. 낙태의 후유증을 연구하면서 낙태를 경험한 여성이 출산한 여성에 비해, 낙태한 여성은 모든 죽음의 원인에 있어서 사망 위험이 62% 더 높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가능성은 최소한 8년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낙태한 여성은 정상적으로 출산한 여성에 비해 다음해에 죽을 확률이 3.5배,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죽을 확률이 1.6배, 자살할 확률이 6배, 살인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14배,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나 된다는 것이다.

그 논문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였다. 낙태는 태아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성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낙태를 하고 난 뒤의 안도감은 서서히 죄책감으로 변해 여성의 삶의 어느 시기에 결정적으로 여성의 삶을 흔드는 것이 틀림없다. 그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성은 내면에 깊은 상처를 입고 상처의 후유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낙태의 후유증과 여성의 자살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것인지 알기 위해 낙태의 정신적 후유증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에게는 모성이 있다. 자신의 안녕과 행복보다는 자녀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며 자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대신하기를 바라고 자녀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성이 낙태할 당시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성은 묻혀 버린다. 낙태 후 아이를 잉태하고 낳으면서 모성이 되살아나지만 그때에 낙태되었던 내 아이는 이 세상



강인숙 프리스카  
구암약국 약사.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박사 과정 중.  
인천교구 라헬프로그램 진행자

라헬 프로그램은 미국 천주교회에서 낙태 후 치유사목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라헬 프로젝트(Project Rachel) 안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낙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정신적, 영성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1984년 미국 밀워키 교구(Milwaukee Diocese)에서 빅토리아 쏰(Victoria Thorn)에 의해 시작된 라헬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내 140여 교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캐나다, 필리핀 등 전 세계 여러 교구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교구의 '희망으로 가는 길', 인천교구의 '라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라헬프로그램

에 없다.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의 부재는 여성의 삶에 또 다른 혼란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한다.

낙태 후 정신적인 후유증은 불안, 우울증, 수면 장애, 대인 기피증, 멈출 수 없는 울음, 의욕부진, 자살 충동, 자신에 대한 학대, 낙태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사랑 부족, 음주, 흡연, 약물 중독, 정신적인 원인으로 임신이 되지 않거나 임신에 문제가 생기는 등이 있다. 많은 여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 슬픔과 공허감을 마음 속 깊이 안고 살아간다.

또한,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낙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도 치료가 진행되면서 현재의 그들 고뇌의 근원적 원인은 이미 겪은 낙태에 대한 장기적 반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낙태에 연관된 해소되지 않은 갈등은 그 여성들의 삶에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 시킨다.

그것은 낙태이후 슬픔을 이기지 못하거나 낙태 후 큰 죄책감 없이 지내던 여성도 삶의 고난이 닥치거나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느낌이나 정서적 고통이 찾아오고 그러한 고통을 중지시키기 위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2006년 뉴질랜드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낙태 후 자살 시도가 늘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같은 나이의 소녀들에게서 낙태 후 자살 시도는 50%, 낙태하지 않고 출산한 소녀들은 25% 자살 시도를 하였고 임신하지 않았던 소녀들은 23%의 자살 시도를 하였다.<sup>1)</sup> 이러한 생각은 낙태했던 날이나 아기가 살아서 출생했을 생일 전후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낙태 여성의 60%가 자살충동을 느꼈으며, 28%는 자살을 시도했으며, 그중에 절반은 두 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sup>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낙태경험은 여성과 남성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기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지탱하다 못해 자아 개념과 자아 가치가 황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인간 관계가 두드러지게 짧으며, 이혼은 더 많다고 보고된다. 이것은 매우 낮은 자기 존중감, 남자에 대한 강한 불신감, 성적 기능장애, 약물남용, 그리고 우울증의 정도가 심해

1) Cfr. Fergusson DM et al., Abortion in young women and subsequent mental healt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Psychiatry*, 2006;47(1):16-24.

2) Cfr. DC Reardon et. al., Deaths Associated With Pregnancy Outcome: A Record Linkage Study of Low Income Women, *Southern Medical Journal* 2002;95(8):834-41.

지는 것과 불안, 일시적으로 폭발하는 분노에 기인한다.<sup>3)</sup> 이는 자살로 이어질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낙태 후 정신적 후유증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으로 라헬 프로그램이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는 천주교에서는 낙태를 한 여성 신자들이 낙태 후에 낙태의 진실을 알고 죄책감으로 괴로워 한다는 사실에 사목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낙태한 사실을 뉘우치고 있는 여성들을 정신적으로 위로하고 그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들의 낙태된 아이들과의 화해의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이 라헬 프로그램이다.

라헬 프로그램은 미국 천주교회에서 낙태 후 치유사목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라헬 프로젝트(Project Rachel) 안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낙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정신적, 영성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1984년 미국 밀워키 교구(Milwaukee Diocese)에서 빅토리아 썸(Victoria Thorn)에 의해 시작된 라헬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 내 140여 교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캐나다, 필리핀 등 전 세계 여러 교구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교구의 '희망으로 가는 길', 인천교구의 '라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라헬 프로그램을 통해 낙태한 여성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고 용서받으며 생명의 길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사회의 생명경시 현상의 출발은 낙태에 있다고 보여진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나 사회구조상 약한 구성원인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며 이러한 경우 인간 상호 관계와 사회생활 안에서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힘"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죽음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자유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복종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약자 위에 군림하는 '강자'의 자유가 되고 만다고 '생명의 복음'에서 말씀하셨다.

얼마 전 '생명윤리 안전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배아를 '수정란 및 수정란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으로 정의하였다. 배아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으로 사용해도 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태아도 생명이라는 인식은 공유하지만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을 하며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에서 배아를 단지 세포군일 뿐 생명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법이 공포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우리 생명도 배아부터 시작되었고 수정란부터 분열하여 자궁에 착상하기위해 수정란 막을 깨는 효소를 분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배아임을 알려야 한다. 생명이 아닌 세포군이 스스로 막을 깨면서 영양을 공급받을 자궁을 찾아 안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정란 안의 양분만으로는 생명으로 성장할 수 없으니 모체에서서 영양을 받고자 막을 깨고 자궁에 착상하는 것이다. 배아부터 생명이며 그 배아를 사람으로 보호하고 예후를 해주어야 한다. 우선 배아가 성장한 태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연약한 생명임을 알려야 한다.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경우라도 그 생명을 다른 상황에 양보해서는 안되며 우리는 같이 보호해주고 지켜야 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지금은 생명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배아를 생명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조와 그에 스며든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그 첫걸음은 낙태를 막는데 있다고 본다. 더불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고 그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알리고 그 후유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책과 프로그램이 보급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태아를 지키는 것이 나아가 배아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고 배아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을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소명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3) Cfr. Shepard, et al., Contraceptive Practice and Repeat Induced Abortion: An Epidemiology Investigation, *J. Biosocial Science* 1979;11:289-302.